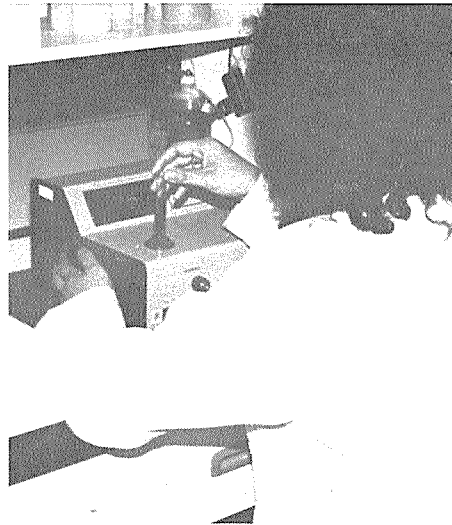


## 종합검사안내

66 성인병은  
대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 발견 하면  
100% 완치도 가능하다 99



# 건강종합 검사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지부의

### 1 상담안내

#### 검사에 임하기전의 예비상식

에나 지금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병과 죽음에 대하여 공포를 갖고 있다. 미리 알수만있고 미리 막을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일은 없을것이다.

특히 요즈음은 근대화 발전에 힘입어 국가, 사회, 가정등 경제성장을 비롯하여 모든방면에 여유있는 생활을 하게되어 식생활만 해도 과잉 섭취가 많아 비만 체질이 늘고 심지어는 비만 어린이들도 많이 볼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성인병인 고혈압, 당뇨, 간장질환, 심장병, 각종 암등의 환자도 크게 증가 하고 있다.

성인병은 대개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에 발견 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전국민의 건강에 대한 배려로 각종 의료보험 제도와 종합건강검사, 국민체육진흥등을 점차 개선 해가는 단계이며 그 가운데 국민종합건강검사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 산하기관 이며 비영리단체인 본협회 각시도 지부에서 그 한부분을 담당 하고 있다.

상담안내는 주로 내원 하신분들이 검사에 임하기전 필요한 예비상식에 대하여 안내한다. 성인병의 조기발견, 조기 치료를 위하여 미리 예방 할수있는 검사로 채혈, 채뇨, 심전도, X-선검사, 자궁암등 약 40여종에 대한 검사를 한다.

검사 비용은 의료보험카드가 없어도 의료보험 수준 이므로 전국민이 누구나 부담없이 1년에 한번이상 정기검사를 받아 볼수있다.

아직은 건강검사를 위한 내원 보다는



# 궁금증이 제심니까? " " " " " " " " " " " "

## 건강 검사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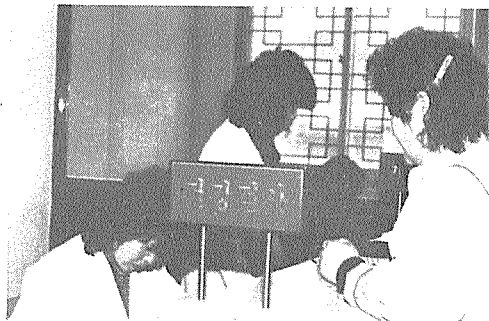
환부를 호소하는 내원자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검사 또는 병원으로 가도록 안내하고있다.

검사전에 지켜야할 점은 6~8시간 이상 공복상태 이어야 하며 공복상태라 함은 식사는 물론 음료수, 커피, 사탕, 껌, 약물등 일체를 피해야 한다.

종합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0~50분 정도이고, 검사 받기전이나 검사결과를 받고난 후에도 관리의사와 건강상담을 할수 있으며 필요한 부분만도 검사 받을수 있다. 또 비교검사를 위하여 재검이나 정기검사가 가능하며 모든 검사결과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전문의들의 정확한 판독을 거친후 컴퓨터에 입력·처리하여 주소지로 통보 하는데 약 12일 이내에 받을수 있다. 개인별로 통보된 검사결과는 본인이 영구 보존할수 있으므로 계속 정기검사를 받는다면 자

신의 건강을 쉽게 비교 검토해 볼수있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것이다.

이와같이 전국민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검사할수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아무런 증상없이 발병하여 전이되는 성인병에 대



▲상담안내는 주로 내원 하신분들이 검사에 임하기전 필요한 예비상식에 대하여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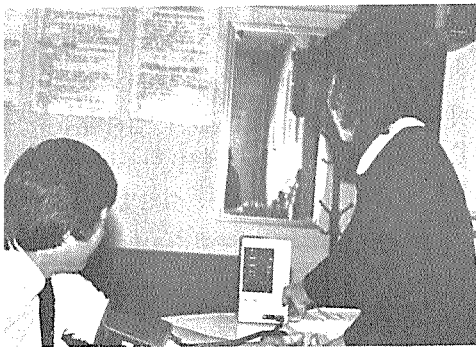
하여 조기검사를 받아 건강장수의 혜택을 누리보자.

## 2 기초검사실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보조검사

본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검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하기위한 보조검사 라고도 할 수 있으며 직장인의 신체검사를 맡고 있는 곳 이기도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초검사실의 업무를 설명한다면 첫째, 신장및 체중을 측정하여 표준체중을 유지 하도록 상담을 해준다. 둘째, 혈압을 측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혈압상태의 4단계, 즉 저혈압; 최고(수축기)혈압이 100 mmHg이하 최저(확장기)혈압이 60 mmHg 이하인 경우 정상혈압; 최고(수축기)혈압이 140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기초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mmHg이하 최저(확장기)혈압이 90 mmHg이하인 경우, 경계성 고혈압; 최고(수축기)혈압이 140 mmHg~160 mmHg사이 최저(확장기)혈압이 90 mmHg~95 mmHg사이인 경우, 고혈압; 최고(수축기)혈압이 160 mmHg이상 최저(확장기)혈압이 95 mmHg이상인 경

우를 알려준다. 혈압은 한번 측정하고 고혈압이다 저혈압이다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하루중에도 혈압은 여러원인(유전적소질, stress, 비만, 노동, 과로 등)에 의해 수시로 변동하기 쉬우므로 적어도 3~4일간 하루에도 3~4회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 혈압상태를 파악하여 판정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수검자들에게 혈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려준다. 셋째, 시력은 한천식식 시력표로 표준조도와 거리에서 정확하게 좌, 우 시력을 측정 하여주며 넷째, 청력은 청력계를 이용 Frequency selector를 500에서 1,000, 2,000, 4,000으로 변경해 가며 Hearing Loss Selector를 0dB에서 60dB까지 움직여 가면서 가청을 확인하여 정상인, 난청 악이를 구별, 판정하여 준다. 다섯째, 색신은 한천식식 색각검사표를 시검자 전방 약 75cm 거리에서 표면시선과 수직이 되도록 하여 한장씩 지시하여 아라비아 숫자는 약 3초이내에 바로 읽고 곡선은 약 10초이내에 바로 그리면 정답으로 간주하며 단 피검자가 어리거나 지능이 부족한 경우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있으며 검사표가 퇴색되어 잘못된 검사결과를 초래하지않도록 사용 유효기간 5년을 엄수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색각이상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중 가장 많은 것이 선천성 제1 제2색각이상(적녹색약 및색맹)이며 그 정도를 각각 약도, 중등도 및 강도로 구분하거나 그 사이에는 명확한 한계가 없고 전색맹은 매우 드물며 제1 제2색각이상은 상당히 많아서 모든 남자의 약 5% 여자에게 약 0.2%

정도 나타난다. 이상과 같은 검사는 건강인이 흔히 소홀하기 쉬운 것으로써 평생동안 별이상 없으면 한번도 검사해보는이가 거의 없을것이나 생활에 불편을 안느낀다고 소홀했던것이 뜻하지 않는 불행을 자초하는 원인이 될 수도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기초검사는 꼭 필요 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성인병(비전염성만성질환)은 조기발견하면 그치료와 예후가 좋듯이 정기적인 검사는 조기발견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이곳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많이 찾아주시고 아울러 기초검사실은 언제나문이 열려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혈액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1)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받아서 배설기관으로 운반한다.
- (2)산, 염기, 삼투압평형 등 전신의 물리화학적 성상을 조절한다.
- (3)백혈구 및 항체 등의 방어작용으로 우리 몸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전신 어디서 일어나는 변화든지 예민하게 혈액의 성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을 검사하는 것은 비단 조혈장기의 질환뿐아니라 모든 기질적 질환의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된다.

검사에 가장 적당한 혈액은 우리 몸을 자연스럽게 돌고있는 순환혈액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좁은 혈관을 서서히

## 3 채혈과 채뇨

### 종합검사에서 필수 과정

혈액(Blood)은 신체의 각 부분을 돌면서 각종 기능을 수행하며, 요는 95% 이상의 수분을 가진 인체 신진대사의 노폐물이다.

혈액학적 검사나 임상생화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를 위해 혈액의 채취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신장의 작용·요로계통의 이상유무를 보기 위하여 소변의 채취도 필수적이다.

#### 채혈(Blood Collection)

우선 혈액에 대하여 알아보자.

혈액은 심장과 이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들어있는 붉은 액체로서 체중의 약 8%(1/13)를 차지한다.



▲혈액학적 검사나 임상생화학적 검사, 혈청학적 검사를 위해 혈액의 채취는 매우 중요하다.

통과하는 모세관 혈액보다는 큰 혈관으로도도히 흐르는 정맥혈이 더 적당한 검사재료가 된다.

본 협회에서 기초검사실을 거친 내원자는 ②번의 표지가 붙은 채혈실로 들어온다.

두꺼운 상의는 비치되어 있는 옷걸이

에 걸어놓고 채혈시 주의 사항을 읽어 본다. 채혈전에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는데 간단한 대화로 쉽게 안정할 수 있으며 소매가 조이는 옷은 채혈후 지혈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매를 헐렁하게 늦춘다.

검사에 필요한 정맥혈은 짙은 자색을 띠므로 시험관(Test tube)에 담았을 때 검게 보인다.

본 협회는 내원자를 위하여 각종 건강 상담에 응하므로 일단 채혈실에 들어온 수검자는 자신이 선택한 검사종목에 대하여 재차 물을 필요가 없으며 쉽게 쓰여진 안내문을 참고한다.

채혈후 혈액형은 그 자리에서 알려주므로 자기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수 있다.

당뇨병환자에 한하여 식사 2시간후 당뇨검사를 하며 본인이 시간 맞춰 내원하면 즉시 채혈할 수 있다.

빈혈, B형 간염검사, 간기능, 지질검사, 신장, 췌장, 심장등 여러가지를 혈액검사로 하는데 8cc정도(헌혈시는 320cc, 헌혈량의1/40)소요되므로 최소량으로 많은 검사를 하는 것이다. 혈액은 수시로 만들어지므로 8cc의 채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 채뇨 (Urin Collection)

채혈실에 들어오면 우선 소변 컵을 주는데 소변을 받아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변 컵받침대에 놓아두면 된다. 소변 컵에 자신의 수검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바뀔 염려는 없다.

채뇨시 처음뇨는 흘려버리고 중간뇨를 채취하는 것이 좋다.

요검사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요는 신장에서 분비되어 나오는 배설물이며 병적인 경우에는 단백, 당, 케톤체 등을 비롯한 각종 대사 이상물질이 다량 배설되기도 한다.

요검사는 이러한 물질들의 양적변동 및 이상성분을 검출하여 각종 질병의 진단을 하며, 간격을 두고 반복 실시하기가 쉽고, 배설물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그밖의 체액보다 얻기 쉬우며, 환자에게 주는 고통이 없는 반면 이로써 얻는 결과는 대단히 큰 것이다.

협회에선 Urotron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계는 9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한다. 기계자체가 요성분을 예민하게 판독하므로 기본검사엔 필수적이며 9가지 중 한가지나 그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면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검사시엔 첫번 검사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있어 좋으며 잠시 기다리면 그 자리에서 결과를 볼수 있다.

재검사후 결과가 역시 이상이면 본 협회 관리의사와 치료에 관해 상담하고 치료중이나 치료후 어느정도인가를 보기 위하여 쉽게 요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심전도 검사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현대 생활에서 가중화된 업무속에서 스트레스, 과로등으로 겪는 수많은 질병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심장일 것이다.

심장은 탄생에서 부터 사망할 때 까지

잠깐 동안이라도 멈추어서는 생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평소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발육이 부진하거나 운동 제한 등으로 자유스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부모들이 방관해 버린다면 급기야는 그늘진 얼굴에 미소까지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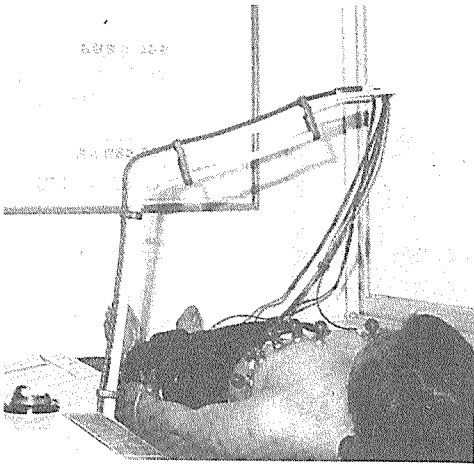
종종 있는 일이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행한 경우도 있다. 심장에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맥의 변화(부정맥, 빈맥, 서맥)부종, 숨참, 가슴 두근거림, 입술이 파래지고 혈당이 나올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를 해야 한다. 심장질환(심근염, 협심증, 심근경색, 심내막염, 심낭염), 고혈압증, 선

단, 급성 열성질환(류마티스열), 흉부질환, 대수술, 약물 중독, 중년 이후의 사람이 정밀 검사를 할때 심전도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여기서 심전도 검사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요약 하면 심장이 박동 할때 전기적 흥분이 일어 나서 활동 전류를 만들어 신체 표면에 전해 지는 것을 전류계로 파형을 기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학동기 아동들은 조기에 심장질환에 관한 체크를 해서 조치를 하는 현명한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심장검사 업무를 하다 보면 더러는 안타까운 생각이 앞선다. 조금 빨리 알았다면 고생을 덜하고 지낼 수 있을텐데……

우리나라 같이 아직 가정에서 분만하는 경우가 많고 또 출생후에도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는 일도 적으므로 국민학교에 들어가기전에 심장병이 있는 수가 적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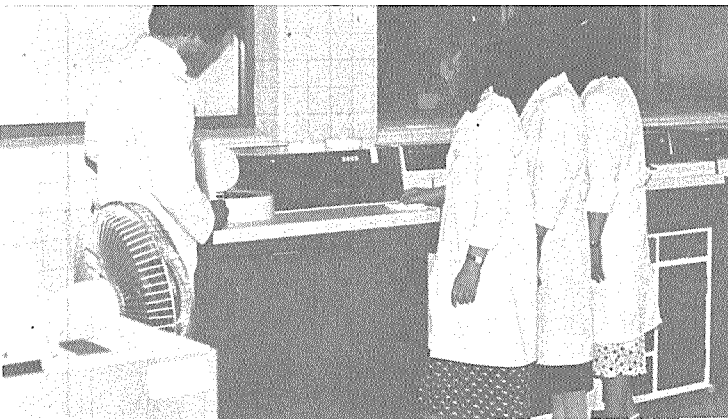
만약에 선천성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다 수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벼운 경우는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 같이 생활을 해도 된다. 만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 수술을 하면 좋은지 적기가 있으므로 적당한 때에 수술을 해주면 최근의 심장수술의 발달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심장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모든 심장질환의 관리를 위하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심장검진을 실시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무슨 병이든지 예방, 조기발견, 조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병이 걸려 진행된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또 귀한 생명들을 고통에서 구제 할 수 있는 길이다.



▲ 모든 심장질환의 관리를 위하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심장검진을 실시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천성 심질환, 부정맥, 우흉심의 확정 진

우리나라는 폐질환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탄광촌이나,  
 채석장 철공장 등  
 그 외의 많은  
 작업장에서의  
 폐질환 발병은 심각하다



# 5 폐기능검사

## 폐기능 장애요인발견

산업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경제적 혜택은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각종 산업장과 공장에서 뿜어내는 유독성 gas나 자동차의 시꺼먼 매연과 먼지 등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유해한 물질과 오염된 공기속에서의 호흡은 우리 인체에 기관지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므로 여기에 대한 조기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폐질환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탄광촌이나, 채석장, 철공장 등 그 외의 많은 작업장에서의 폐질환 발병은 심각하다.

폐기능 검사의 목적은, 폐기능 장애의 정량적인 평가 및 진단의 보조, 그리고 말소기도 병변의 검출, 흉부 X선에 의한 진단으로 판정이 곤란한 병변의 검출 호흡곤란의 객관적 평가, 호흡계 질환에 있어서의 치료방침의 선정, 지역의

공해검진, 노인정, 학교, 회사의 정기검사 및 건강관리 등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능 검사는 폐역학 및 환기를 사정하기 위한 육체적 활동의 검사로 흉벽과 횡경막 및 폐가 공기를 내쉬고 들이쉬는 능력과 폐포속으로 분산시키는 능력을 보기위한 것이다. 보통 폐활량은 남자가 여자보다 크고 젊은이가 노인보다 크며 이것은 성별, 연령, 신장에 의해 측정된다. 폐활량의 감소는 제한성 환기장애와 심부전 등에서 보이고 있는데 환기장애에는 구속성 장애와 폐쇄성 장애, 그리고 혼합성 장애가 있다.

구속성 장애는 흉곽운동의 제한으로 폐조직의 폐확장과 감소로 인하여 기도내의 공기량이 감소되는 결과로서 흉곽의 신경이나 근육의 병변시에 볼 수 있고 폐쇄성 장애는 만성 폐쇄성 질환, 기관지 부종 및 기관지 분비물 흡입 등으로 기도저항이 증가되어 환기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다. 혼합성 장애는 상당히 진행된 폐질환에서 구속성 장애와 폐쇄성 장애가 같이오는 것을 말한다.

폐기능 검사는 이 3가지 장애를 측정

하지만 폐기능 검사에 의해 얻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개인의 특정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나온 측정치와 혈액가스 분석, 직업환경적 소견, 진찰소견, 깃연 등 사회적 소견 및 신체검진 등에서 얻어지는 정보 등을 다 같이 참조하여 진단한다.

산업사회가 쏟아내는 공해와 밀폐된 작업장의 분진, 다량의 깃연 등은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을 유발하므로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를 하여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한다. 이 검사는 질병의 진단에 앞서 예방의 목적으로 거의 모든 성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 6 X-Ray 검사

###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검사

흉부 X 선 검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는 검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한 두번쯤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다.

일반인들은 X 선하면 흉부촬영(chest)

을 떠올릴만큼 대중화 되었으며 X 선 검사가 시작 되면서부터 흉부촬영의 중요성과 촬영빈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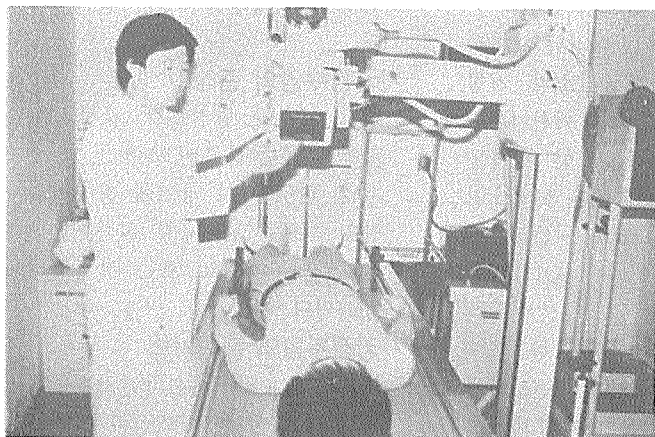
여기서 흉부촬영이라 하면 과연 무엇을 검사하며 무슨 질환을 발견할 수 있기에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흉부 촬영에는 몇가지 촬영방법이 있다. 첫째,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촬영하는 방법이 배복(背腹) 방향 촬영법이다.

예를들어 일반 신체검사와 흉부검사가 모두 이 촬영법이라 하면 쉬운 설명이 될 것이다. 폐의 질환중에서 가장 많은 결핵, 심장 및 대혈관, 늑막병변의 유무 및 그 외흉곽의 상태등을 검사할 수 있다.

둘째, 복배방향 촬영법이다. 이 방법은 후부 늑막이나 폐의 배부(背部)에 가까운 병소를 검사하는데 필요하다.

셋째, 측면(lateral) 방향이다. 중앙음영 기타에 가려서 보이지않는 병변이나 폐문부등 종격동의 병변이 예상되는 경우 폐 내외(内外)부의 감별, 엽간늑막(葉間肋膜) 병변의 진단, 병소의 번짐이나



일반인들은 X선하면 흉부촬영(chest)을 떠올릴만큼 대중화 되었으며 X선 검사가 시작 되면서부터 흉부촬영의 중요성과 촬영 빈도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위치의 입체적인 파악이 필요할때 실시한다.

넷째, 사방향(oblique)이다. 측면촬영과 비교적 흡사한 진단적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폐침촬영(photographing of apex)이다. 폐침부는 보통의 후전방향 촬영으로 연부조직, 쇄골, 제1~2늑골 또는 그들의 수반음영(隨伴陰影)등에 덮여서 병소가 숨겨 지거나 또는 세부의 구조를 보기 힘든 부분으로 병소의 발생빈도가 높다. 따라서 특별한 방법으로 폐침부를 보기 쉽도록 촬영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심장 대혈관 촬영이다. 방사분산되는 X 선중 투영면에 직각으로 투사되는 중심선 만으로 심장의 크기를 검사한다. 이상 몇가지의 흉부 검사법을 나열해 보았다. 요즘에 들어서는 수년전에 비해 아주 낮은 결핵의 유병율을 나타내지만 아직도 결핵을 앓고있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보여진다(86년 본 협회내원자중 유병율 2.7%) 결핵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생각해야 하며, 감기증세가 오래 간다거나 쉬피로해지고 식욕이 없으며 체중감소와 기침을 자주하는 사람, 가족중 결핵환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흉부X-선 검사를 받아보아야하며 공기가 맑지않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 외부인과 대화의 시간이 잦은사람은 1년에 2~3 회의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

국민의 예방의학적인 면에서 한몫을 하고있는 본 협회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여 모든 질병을 조기에 퇴치하

고 성인병 만성질환을 미리 예방할수 있는 그런날을 위해서 우리 근무자는 노력할 것이며 치료보다는 예방이 먼저라는 진리를 우리국민 모두가 깊이 인식하여 예방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7 자궁암검사

저렴하고, 간단한 기구 사용

자궁암은 여성 생식기의 악성종양으로서 자궁체부암과 자궁경부암으로 나누며 그 비율은 1 : 6 (미국)으로 자궁경부암의 발생빈도가 높다. 본 협회에서는 자궁경부암의 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 자궁경부암의 호발년령

45~55세

### 자궁경부암의 원인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청결상태, 조혼(14~15세), 분만횟수, 만성경관염등이 원인이라 본다.

### 자궁경부암의 증상

성교후 출혈, 월경불순, 월경과다, 말기에는 심한 통증이 오며간, 폐, 흉막, 뇌골, 피부등 타 장기에 전이되고 사망의 주요원인은 측부 침식으로 인한 요도압박, 폐쇄로 오는 요독증(Uremia)이다.

### 자궁경부암의 진단방법

세포학적 도말검사를 1차적으로 하고 그 결과 양성 또는 의심이 있으면 생

검으로 최종적 진단을 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자궁경부의 세포를 채취하는 저렴하고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큰 자랑이라 할수 있다.

### 자궁경부암의 임상적 분류

0기암~침윤전암 또는 상피내암을 말함.

제1기암~암이 경부에만 국한됨

제2기암~암이 경부를 지나 한쪽 또는 양쪽의 골반 결합조직에 도달하였고 골반벽 또는 질의 하방1/3부위까지는 침범되지 않은 상태



▲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는 자궁경부암이 조기 발견 될수록 완치율이 높으므로 검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제3기암~암이 골반벽까지 가고 질의 하방 1/3부위까지 침윤된 상태  
자궁경부암의 치료

그 정도에 따라 (0기, 1기, 2기,3기) 방사선요법, 또는 수술이 행해진다.  
정기적인 자궁암 검사는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되며 조기 발견 될수록 완치율이 높으므로 검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건강관리협회 검사실 6번방이 바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검

사물 채취실이다.

참고서적 하영수 지음

Textbook of Maternal and  
Child Nursing



## 성병검사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

성에 대해서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른 서방문명과 함께 성개방 물결이 불어와 옛 조상들이 지켜오던 성윤리관과 가치관에 큰 변화와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성개방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나 지식 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채 서방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날 우리사회에 성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남게되었다.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수가 있어 자칫 성에대한 올바른 이해도 못한채 분별없는 성행동을 유발케 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무질서한 성행위로 인한 성병의 감염율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어 이 문제도 사회의 커다란 병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성병에 전염될수 있는 근원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인 요인을 최대한으로 막을수 있는 것이다. 그의 일환으로써 본 협회에서는 현재 성북구 하월곡동 특수업태부 지역과 영등포구 지역을 주1회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



성병에 걸리게 되면  
불임증의 원인이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시  
유산율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성병은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접촉된 부위의 점막이나 피부로부터 성병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병으로서 전염병의 일종이다.

성행위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에는 여러종류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연성하감, 서혜육아증, 성병성임파육아증 등 6가지를 성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최근 발견된 성병으로 문제되는것으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자각증상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알게되나 성병은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한채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임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여자의 경우 감염이 되어도 약 80%가 아무런 증상없이 지나면서 남에게는 병을 옮겨주게되어 문제를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병은 임질과 매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임질의 증상을 보면 성행위를 한 후 보통 3~4일 정도면 증상을 느낄 수 있다. 남자의 경우는 소변을 볼때 따가움을 느끼게 되고 누런 농이 나오게 된다. 여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는 수가 많으며 점차 병균이 침범하게 되면 질분비액의 색이 누렇게 되며 양도 많아진다.

이와 같이 성병에 걸리게 되면 불임증의 원인이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임신시 유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성병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만일 불미스러운 성행위를 했을때는 즉시 적절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병감염의 의심이 있는 성 접촉 후에는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 조기발견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하여 무서운 성병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불임증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